

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

| 새해 인사 |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소 「i-KIET 산업경제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우리 경제는 전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하강이 상반기에 침체국면으로 이어졌고, 하반기 들어서는 다행히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경기 하강, 그리고 기대보다 약했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부진한 수출 흐름이 3분기까지 이어졌으며, 하반기에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까지 더해져 전년 수준의 절반에 불과한 성적표가 예상됩니다.

2024년 우리 경제도 현재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상황에서, 고물가 및 고금리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되며 세계경제 성장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로 우리 경제는 전년보다 나아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금융 여건 악화로 인한 내수 부진 등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하에서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실물경제의 현안 분석과 정책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국내경제의 활력 제고와 산업 재도약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우리 연구진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산업연구원장 주현

세계경제, 둔화 중 국가 간 차별적 양상, 고물가·고금리 지속과 지정학적 리스크 부상

현재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무력 충돌과 경제적 긴장 관계가 계속되며, 이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의 금융긴축 노력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성공했지만,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기 하강 압력으로 2023년은 전년 대비 성장세가 둔화하는 한 해로 기록되었다. 과열된 수요를 식히는 과정의 경기 둔화 효과는 이미 예상되었으나, 교착상태에 빠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전쟁의 지속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주로 공급 측면의 교란 및 불확실성 요인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낳음과 동시에 경기 회복 시점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더불어 글로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상반기에는 미국 일부 은행의 파산 사태가 일어났고, 하반기에는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등 금융 위기 우려를 불러올 만한 이벤트들도 발생하였다. 다만, 세계 대다수 국가가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만 경제의 기초 조건과 상황에 따라 국가 간 성장세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고용시장 호조와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미국경제는 연간 2%대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일본과 유로존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성장세를 보여 선진권 경제 내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신흥권도 전반적으로 약한 반등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효과가 기대되었던 중국경제는 예상보다 성장률 회복이 늦어지고 있으나 브라질과 인도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과거 어느 해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인플레이션 안정화 이전까지 정책당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및 식량과 같은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 간 경제적·정치적 마찰로 부진했던 세계 교역은 2023년 침체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전망된다. 미국경제는 코로나 지원책에 의한 가계소비 여력 확대와 서비스 고용 수요 등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더딘 인플레이션 둔화로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짐에 따른 수요 억제 본격화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일본경제는 내수 약화와 함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과 기시다 정부의 감세 정책 등의 영향에 따라 성장 둔화 정도가 좌우될 것이며, 유로존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가 내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역내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외수 약세로 대내외 성장 여건이 약해지고 있으며,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성장률의 하락이 예상된다.

금년 세계 경기 향방은 이스라엘-하마스 교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개 양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인플레이션 안정화 여부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억제 정도, 주요국들의 정치 이벤트(미국 대선 등) 결과 및 국가 간 대립 완화 여부 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 수출 회복세 불구 내수 둔화가 성장을 제약하며 완만한 성장세 예상

올해 국내경제는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화되어 소비 성장세가 둔화하고 건설투자가 위축됨으로써 전년 대비 2.0% 수준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 등이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화가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설비투자는 친환경 차량의 견조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업종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반도체 업황의 완만한 회복과 주요 기업들의 계획된 투자 집행, 기저 효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소폭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및 토목건설 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신규 인허가 및 착공, 건설수주액 등의 선행지표들이 부진하여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소비는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 확대, 금융 부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이 성장을 제약하여 전년 대비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자동차 수출 규모가 유지되고, 전년도의 기저 효과와 세계 무역의 완만한 회복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수입은 수출 업황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와 원자재 가격 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 대비 0.7%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연간 265억 달러 규모의 흑자가 예상된다.

대응력 강화 및 회복에 힘쓰고, 구조적 전환 노력 지속

전년에 이은 국가 간 정치적, 경제적 긴장과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은 우리 경제가 올 초부터 맞닥뜨리고 있는 과제이다. 이에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구조 전환 노력도 등한시하지 않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요인에 대한 점검은 상시적, 체계적, 분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위협요인의 증폭과 확산을 예상하고 우리 경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검토된 대응 조치 등이 마련된다면 피해는 최소화될 것이다. 또한 대외적 위협요인의 발현 가능성과 영향력에 대한 사전파악과 대응계획 마련이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개별 산업 단위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대응의 시의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여전히 높은 3%대의 고물가 상황은 올해도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며 당분간 우리 경제에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다.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될 것이

라는 기대감 속에서 결국 올해 경제 회복의 관건은 이러한 상황에 따른 내수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자 부담 등이 개인의 소비 활동을 제약하고 경기 둔화와 고금리가 병존하며 쌓여가는 기업 부채는 개인과 기업의 여력에 따라 영향력과 회복력이 달리 나타날 것이다. 결국 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 진작은 통화정책의 다른 한편에 자리 잡은 재정정책의 역할에 기대어야 하되, 다만 재정 이슈를 고려할 때 선별적 정책 대응이 적합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앞에 놓인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수반되는 공급망 위협은 어느 국가도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국제적 규범 준수보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며 나타난 세계 무역 시장 분절화는 자원 빈국이며, 수출 의존적이고, 특정 산업·국가의 의존 관계가 큰 우리 경제에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의 마련과 과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등은 각각 AI 등 관련 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기후변화의 도래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가 순조롭게 적응하며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할 과제이다. 세계적 흐름을 능동적으로 활용한 구조적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현재 세계 1위 초저출산 국가로 장차 성장잠재력 하락이 자명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조 개혁도 시급하다.

올해는 현 정부 임기의 반환점에 다다르는 시기이다. 대내외적으로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이슈가 어느 해보다 잦으면서 불안정과 불확실의 정도가 어느 해보다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업, 정부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공감 그리고 달성을 위한 노력을 수반한다면, 새해 갑진년은 우리 경제에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로 도약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주현 산업연구원장